

2019년 10월 23일

배포 후 바로 보도 가능합니다.

총 6장

담당: 주한세르비아대사관 및

AAIPS갤러리 임은민 학예연구사

전화: 02) 3701-7340

이메일: embserbseul@yahoo.com

www.aaips-gallery.com

elim@asaninst.org

**세르비아대사관, 수교 30주년 기념전 AAIPS갤러리에서 개최
“각인된 시간: 현대 세르비아 판화 – 베오그라드 미술학부 선정작”
한국에서 최초로 열리는 현대 세르비아 판화 전시**

- 주한세르비아대사관이 대한민국-세르비아 국교 수립 30주년을 맞아 준비한 세르비아 현대 판화전이 오는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2주 간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 AAIPS 갤러리에서 열린다.
- <각인된 시간: 현대 세르비아 판화 – 베오그라드 미술학부 선정작>이라는 제목의 이번 기념 전시회에서는 베오그라드 미술학부가 선정한 판화 44점을 선보인다. 세르비아의 베오그라드 미술학부(The Faculty of Fine Arts in Belgrade)는 14, 15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발칸 반도의 그래픽 미술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온 권위 있는 미술 교육기관이다. 베오그라드 미술학부 교수 13인과 학생 13인이 제작한 판화 작품들을 한국에 처음 전시하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세르비아 그래픽 미술의 진수를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 베오그라드 미술학부장 드미트리예 페치치 교수는 “가장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그래픽 아트는 현대인의 삶, 우리가 매일 접하는 다양한 시각적 내용들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며, “현대 그래픽 아트에서 세계적으로 쟁쟁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서울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를 통해 세르비아 판화를 한국에 널리 알리고 동시에 양국의 문화 교류에 기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 조란 카자조비치(Zoran Kazazovic) 주한 세르비아 대사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르비아와 한국은 모두 자유를 사랑하고 독립을 수호하고자 하는 의지로 역사의 험난한 고비들을 극복해 온 공통점이 있다”며, “지난 30년 간 양국 사이에 굳건히 다져온 우정과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이번 판화 전시처럼 새로운 분야로 교류의 영역을 지속적으로 넓혀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이번 전시회는 아산정책연구원 AAIPS갤러리가 주한 공관과 협력하여 각국의 다양한 문화를 한국인들에게 소개하는 공공외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AAIPS갤러리는 주한세르비아대사관의 판화전에 이어 오는 11월 중순에는 비셰그라드 그룹 4개국(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이 기획한 <1989년 철의 장막 붕괴> 사진전을 개최하는 등, 각국의 다양한 문화콘텐츠 전시를 열 계획이다.

**<각인된 시간: 현대 세르비아 판화 - 베오그라드 미술학부 선정작>
전시 관련자료**

1. 전시 개요

- 주 최: 주한 세르비아 대사관
- 제 목: 각인된 시간: 현대 세르비아 판화 - 베오그라드 미술학부 선정작
- 전시작품: 판화 44점
- 참여작가: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미술학부 교수 13인, 학생 13인
- 기 간: 2019년 10월 29일(화) - 11월 09일(토)
- 관람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 장 소: 아산정책연구원 AAIPS갤러리 (서울 종로구 경희궁1가길 11)
- 개 막 식: 10월 29일(화) 오후 6시 30분, AAIPS갤러리

2. 전시 설명

각인된 시간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진리를 '알레테이아(ἀλήθεια)'라고 정의하기도 했다. '레테(λήθη)', 즉 망각에 의해 사라지거나 숨겨진 것을 다시 떠올리고 드러내는 과정을 의미 있게 여긴 것이다. 망각이란 시간의 흐름 속에 던져진 존재에게 불가피한 현상이다. 매 순간 죽음이라는 미지의 끝을 향해 가는 여정 막바지에 레테라는 강이 가로놓여 있다는 그리스 신화가 일깨워 주듯, 삶의 흔적은 망각 속으로 잠겨 들기 마련이다. 판화는 이러한 인간의 숙명에 저항하는 기억이라는 능력을 비유적으로 잘 보여주는 매체다. 작가는 아스라히 멀어져 가는 순간을 단단히 부여잡아 돌, 나무, 혹은 금속판 위에 이미지로 새겨서 가둔다. 그 판화 원판에 물감을 바르고 종이를 밀착시킨 후 꺾 눌러 이미지를 거둬 찍어내는 과정은 마치 마음 속에 각인된, 그러나 더 이상 현존하지 않는 시간에 다시 접속하고자 하는 기억의 행위를 물질화하여 보여주는 듯하다.

그런데 사진과 디지털 기술을 통해 순간순간을 충실히 재현하고 무한대로 복제할 수 있는 오늘날, 판화는 기억과 관련하여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사진에 고정된 순간은 과거를 물리적으로 매우 유사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흔히 사진을 온전한 기억의 보고라고 믿기 쉽다. 하지만 이는 실제 우리의 기억이 작동하는 방식과는 사뭇 다르다. 기억 속에 부유하는 인상들은 사진에 찍힌 이미지처럼 명료하고 완결된 형태를 띠기보다는 개인적이고 모호하며 자유롭게 재편 가능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편에 더 가깝다. 판화 기법은 이러한 기억의 진실, 다시 말해 각자의 내면에 겹겹이 새겨진 살아낸 삶의 흔적들이 수면 위로 떠오를 때 그 일렁이는 이미지를 표현하는 데 유용하다. 세르비아에서 동시대를 살아가는 작가들의 다채로운 판화 작품들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그들 기억 속에 각인된 발칸 반도의 시간을 펼쳐 보인다. 이 작품들을 통해 우리가 미처 자각하지 못했거나 잊어버린 삶의 이면이 드러나는 알레테이아의 순간을 경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AAIPS갤러리 학예연구사, 임은민

세르비아 현대 판화: 베오그라드 미술학부 선정작

베오그라드 미술학부는 1937년 미술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으며, 1973년 세르비아에서 유일한 예술대학인 베오그라드 예술대학의 일부로 편성되어 현재의 미술학부가 되었다. 설립 이래, 미술학부는 해당 지역에서 미술 교육 분야의 선두적인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80년이 넘는 역사를 이어오며 140명 이상의 저명한 예술가들이 이곳에서 교육에 기여했다. 3,500명의 동문 가운데 16명이 세르비아 과학 예술 아카데미 회원으로 선정되었으며, 많은 졸업생들이 세르비아 미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국제 무대의 수많은 주요 전시회에서 세르비아를 성공적으로 대표하고 있다.

미술학부는 회화, 조각, 판화, 뉴 미디어, 이론이라는 다섯 개의 학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에서 열리는 전시는 판화과, 회화과, 조소과 교직원들의 판화 작품들과 함께 학생들이 작업한 많은 판화들을 선보인다. 이 전시회는 베오그라드 미술학부의 그래픽 아트 제작에 대한 이해를 넓혀줄 것이며, 더 나아가 현대 세르비아 판화를 일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베오그라드 미술학부의 학습 프로그램에서 그래픽 아트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지난 수십 년에 걸쳐 판화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집중적이고 빠르게 발전해 왔으며, 이제는 미술 활동의 광범위한 영역을 망라하고 있다. 게다가, 가장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그래픽 아트는 현대인의 삶, 우리가 매일 접하는 다양한 시각적 내용들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혁신, 날로 증대되는 다른 미디어와 그래픽 아트의 융합, 그리고 새로운 기술의 도입은 학생들로 하여금 복합적인 작품을 창작할 수 있도록 하며, 그래픽 아트 교육에 대한 보다 다양한 접근법을 요청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판화과에서는 교수법적으로 전통적인 판화 기법뿐만 아니라 예술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동시대의 실기와 이론적 탐구도 함께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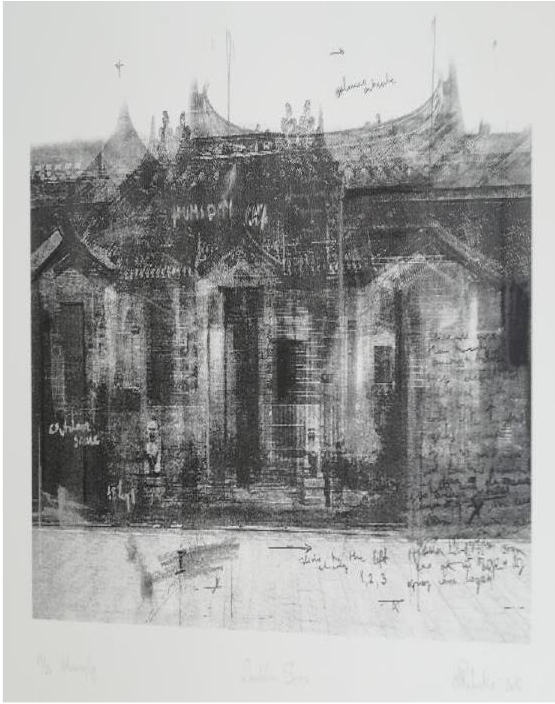
판화과 교수들과 조교들은 미술학부의 전반적인 명성에 크게 기여하여 여러 세대의 학생들이 자신만의 예술적 여정을 그려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아마도 교육에 있어 우리가 기울인 노력의 가장 소중한 성과는 미술학부 동문들이 세계 각국 동료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국제적인 판화 전시 및 행사에 꾸준히 참가하고 있다는 데서 나타날 것이다. 현대 그래픽 아트에서 세계적으로 쟁쟁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서울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베오그라드 미술학부의 위상, 그리고 더 나아가 현대 세르비아 판화를 더욱 널리 알리는데 기여할 것이다.

베오그라드 미술학부 학부장, 디미트리예 페치치 교수

3. 주요 전시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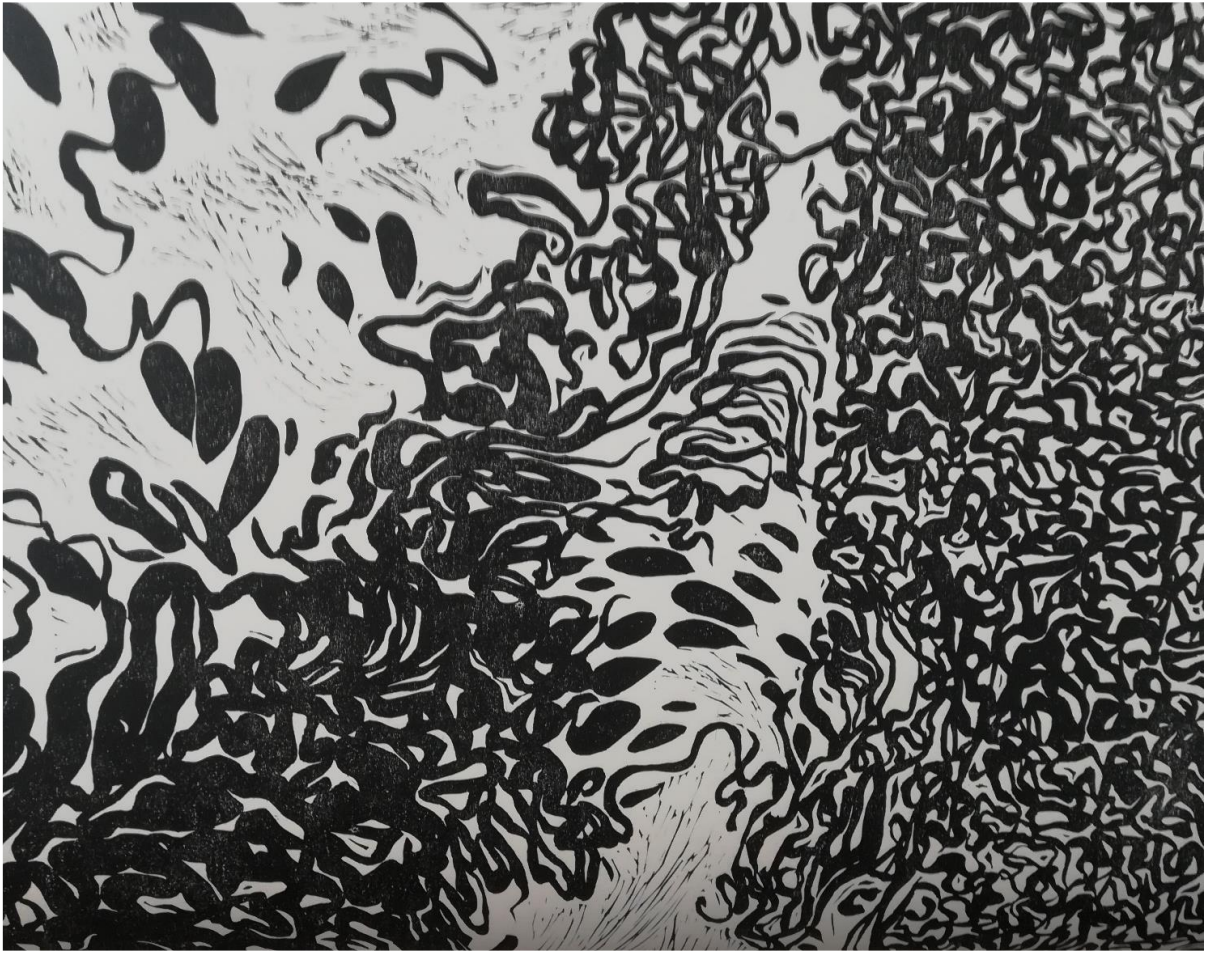
자르코 스미랴니치, 푸른 들판, 2008, 메조틴트, 43 x 29 cm



미나 라키지치, 무제, 2016, 석판인쇄, 80 x 60 cm



드미트리예 페치치, 창 밖 풍경 1, 2016, 목판인쇄, 122 x 85 cm



타마라 세니치치, *무제*, 2016, 라이노컷, 120 x 200 cm



요바나 죠르제위치, *무제*, 음각인쇄, 60 x 100 cm